



언제나 신인의 마음으로
끝이 없는 열정 강수진

온 열정을 품고, 평생 '한우물'을 판 이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 이제 40대지만 세계 정상의 발레리나,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발레리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강수진'이다. 전 세계의 발레 무대에서 최고의 극찬과 갈채를 받아온 그녀. 마냥 빛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 편의 드라마가 있다.

글 허주희 기자 사진 인플루엔셜

1982년, 15살 나이에 모나코 왕립발레학교로 유학 간 후, 1985년 동양인 최초로 스위스 로잔 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강수진. 12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했지만 그는 '늦은 시작'을 만회하듯, 하루 19시간씩 이를 악물고 연습하면서 발레 열정을 불태웠다. 마침내 1986년 세계 5대 발레단인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했고, 1994년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선발되었으며 1997년부터 수석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다.

40대 중반인 지금도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있는 것. 강수진은 자신을 "굉장히 소심하고 수줍은 성격에 나약한 소녀였다."고 회상한다.

"발레를 시작하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Nobody is perfect but who wanna be Nobody!'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누가 '아무도'이고 싶겠는가?)라는 말을 가슴 속으로 외치며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문장입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

있고 '아무도'로 살고 싶지 않은 도전 정신이 생겼습니다.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 혼자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다

1999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최우수 여성무용수상, 2007년에는 최고의 예술가에게 장인의 칭호를 부여하는 독일의 '캄머텐처린'(Kammertanzerin, 궁정무용가)에 선정되기도 한 강수진은 자신이 '타고난 발레리나'도 아니고 '발레 천재'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동안 자신이 특별히 뛰어나서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에 맡기지 않고 발레에만 몰두하면서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낸 결과라고 말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수진'을 치면 그의 이름 뒤에 '발'이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 10여 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그의 발 사진이 소개된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가락과 발등까지 울퉁불퉁 튀어나온 뼈, 뭉개진 발톱 등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진은 '젊은 여자의 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더구나 더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몸짓과는 상반된 발 모양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그의 발은, '그가 살아온 삶' 그 자체를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상처투성이 발'은 발레리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 노력의 산물이자, 영광의 상처가 아닐까.



열정은 정년이 없어,

지금 당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라

그는 어디서나 “나는 45세 신인 발레리나예요!”라고 당당히 말한다. 작품을 대할 때도 항상 45세 신인 발레리나라고 생각하고 결정한다.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는 현역 발레리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달려서 힘이 부치지 않느냐고 걱정스런 질문을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이 더 힘이 납니다. 젊을 때는 발레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 소진했다면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춤을 추면 오히려 발레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수십 년째 발레리나로서 요구되는 몸매를 유지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김치, 생선, 야채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겁고 맛있게 즐기며, 하루 3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 다소 많은 양의 물은 연습이나 공연 때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이다.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과 물을 섭취하고 직업상 항상 몸을 움직이다 보니, 저절로 건강 관리가 되는 셈이다.

“평생을 현역으로 살 순 없고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즐겁게 발레를 하거나 행복한 춤을 추면서 인생을 향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발레리나 강수진. 그는 “나는 오늘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자문하면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라”고 말한다. ☺